

# 문자에 생명 불어넣어

2009 문자 문명전, 창원성산아트홀서 20일까지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경호 회장의 작품, 관세음보살 백련화수진언,  
김경호 회장,  
이번 전시회의 주작품인 천부경.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 주인공 오리 새끼가 못생겨서 온갖 괘시와 구박을 받지만 결국엔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는 비단 동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글을 기록하고 읽지만, 정작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외길 김경호씨는 이런 미운오리새끼처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문자에 생명을 불어 넣어 백조로 탄생시켰다.

김경호 회장은 창원에서 열리는 '2009 문자 문명전'을 통해 백조로 탄생된 사경예술의 진면목을 보여 줄 예정이다.

이번 사경초대전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서예인 사경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보통 사경예술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작가들조차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김회장은 이번 초대전을 통해 사경예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생각이다. 전시회에는 약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이 중 '천부경' '시무외수진언' '백련화수진언' 등은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들이다.

"천부경 작품은 제작에만 꼬박 2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무외수진언과 백련화수진언 2점도 1개월이 걸렸죠. 특히 천부경은 불교를 떠나서 우리 민족 경전이라는 이유로 더욱 애정을 갖고 제작했습니다"

'천부경'은 이번 전시회에 김 회장이 가장 추천하는 주작품이지만 크기는 세로 47.5cm, 가로 32.8cm로 매우 작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으뜸인 보석인 것처럼 저도 다이아몬드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며 "최근 몇 년간 규모는 작지만 작품 하나라도 최대한 밀도 있게 작업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작가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이 세 작품은 순금과 석채 위주로 작업했으며, 작품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

"2009 문자문명전"은 창원 다호리 고분에서 1988년 5자루의 붓과 삭도가 출토된 지 20여년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한국 문자문명의 발달과 전개를 시대별로 엿볼 수 있는 전시이다.

한국문자문명연구회와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에서 주최하는 '2009 문자문명전 외길 김경호 사경초대전'은 9월 9~20일 창원 성산아트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010)4207-7186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생로병사 클래식으로 풀다

니르바나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 공연 '감동'

슈베르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달리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을 할 수 없게 되자 갈등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안 친구 쇼베는 그가 맘 놓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한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슈베르트에게는 결국 독이 되고 말았다. 친구를 따라 사창가를 다니면서 그는 매독에 걸리게 됐고 그의 인생은 파국을 맞는다. 하지만 오히려 슈베르트는 매독 덕에 수많은 작품을 쏟아 냈다. 그 이유는 균이 뇌에 침범해 뇌향진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매독 3단계시기에 장티푸스까지 겹쳐 죽음을 맞는다. 인생은 짧았지만 그는 병에 걸렸어도 통 없이 죽음을 맞았고, 오히려 그 덕에 수많은 주옥같은 작품이 탄생했다. 행운일까? 불행일까?

한 음악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자신의 삶까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 만큼 가치 있는 연주회가 어디 있을까. 불교에서는 생존해 있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가르친다.

9월 2일 열린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슈베르트 편' 3번째 정기공연은 남다른 감동이었다.

공연은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前고려대 의대 교수)가 음악가의 생로병사를 설명하면, 니르바나가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기존 공연과 다른 실험적인 공연방식이었다. 앞으로 니르바나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불교를 알려 나갈지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 사진제공=석영용



## “불교문화로 역사탐방하자”

목아박물관 토박이 놀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목아박물관은 '목아박물관 토박이'라는 주제로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유물을 통한 불교문화를 교육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목아박물관과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

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통목조각 체험과 여주지역 문화탐방을 통해 한국문화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키워줄 예정이다.

또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미래라고 인식하게 한다. 행사는 9월 12일을 시작으로 10월 10일, 11월 14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은 △1차 9월 1~2일 △2차 10월 1~2일 △3차 11월 1~2일이다. (031)885-9952-4 이은정 기자

## “공감가는 가족이야기 하고파”

‘아버지의 가수’ 공연 앞둔 남우성 대표

“기존의 불교문화예술은 너무 이미지화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교적 작품을 창조해 내기 힘듭니다.”

흔히 창작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 말한다. 창작을 통해 불교를 표현하려는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사진)의 이 같은 말은 그가 얼마나 불교예술에 애정과 열정이 많은지 짐작케 한다.

남우성 대표는 “목적극이 아닌 누가 봐도 공감하는 가족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벤치 같은 작품은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돼 있지만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연극도 결국은 모두가 공감하는 연극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무리 극단이 9월 19~23일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올리는 연극 ‘아버지의 가수’는 가난한 작가의 가족사를 통해 인생을 업경대(業鏡臺)에 비쳐 본다는 내용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과 업(業)이라는 화두는 대중가요로 포장해 재미를 주고, 우리네 삶의 회로에악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이야기한다. 저마다 마음속 번뇌의 삶을 들여다 감동으로 이끄는 이번 연극은 재미와 작품성을 동반한 연극이다.

남우성 대표는 “불교극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학로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며 “멀리 내다보고 차츰차츰 인프라를 구축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06-2005



이은정 기자

## 제주세계델픽대회

9~15일, 영산재 시연

세계인의 소통의 장인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9월 9~15일 펼쳐진다.

특히 이번 델픽대회에서 한국은 불교예술을 하나인 영산재를 공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영산재 공연은 10월 제주 문예회관에서 시연되며, 대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마련된 델픽공연예술 축제는 9월 10~13일 제주 문예회관, 돌 문화공원, 신산공원 등에서 열린다.

한편, 제주세계델픽대회는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쟁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

이은정 기자

## 한민족문화예술대전

9월 12일, 봉원사서

민족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팔관제계 정신인 여덟 가지 계율을 지켜 절제와 순결의 고귀함과 청정의 기쁨을 이루도록 하는 예술대회가 펼쳐진다. 한민족문화예술대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 팔관제전승보존회가 주최하는 한민족문화예술대전은 신촌 봉원사에서 9월 12일 열린다.

참가종목은 글짓기, 미술, 종합예술 분야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행사는 선진복지문화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일환으로 자연 환경 가꾸기 실천 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02)2265-8858 이은정 기자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두려울 때는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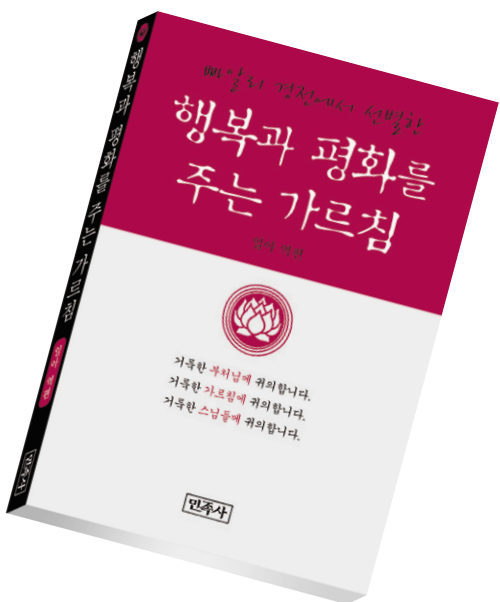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 ① 늙음·죽음·병들·슬픔·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 ② 기도·보시·공덕·효도·자비에 대한 가르침!
- ③ 참된 친구·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 ④ 바른 생각·바른 행동·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아 역편 / 48면 / 값 9,000원

“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



김종수 김수·원일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